픽셀라이프

연윤열의 푸드톡톡

최근 마트나 온라인 식품관을 둘러 보면 묘한 풍경이 펼쳐진다. 교*마*, 도*, 밀*, 타*미* 같은 명품 베이커리 6곳의 식빵을 작은 조각으로 나눠 담은 '식빵 취향 찾기 샘플러'가 눈길을 끈다. 한 덩어리 식빵을 구입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 소비자들은 여섯 조각을 동시에 맛보고 싶어한다. 맥주도 마찬가지다. 맥주 펍에서는 500cc 한 잔 대신 250ml 잔 4개에 각기 다른 맥주를 담은 '비어 샘플러'가 테이블을 채운다. 한 잔에 올인하지 않는다. 네 가지 맛을 홀짝홀짝 비교하며 '오늘의 취향'을 찾는다. 커피는 드립백으로, 화장품은 쁘띠 사이즈로, 심지어 세제도 6개입 캡슐로 쪼개진다.

이런 소비패턴이 바로 2026년 식품 트렌드의 핵심인 '픽셀라이프'다. 디지털 이미지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화소 단위 '픽셀'처럼, 우리 식탁도 작고 많고 빠르게 쪼개지고 있다. 한 브랜드에 충성하지 않고, 한 끼에 머무르지 않으며, 한 가지 맛에 만족하지 않는다. 찰나의 경험을 탐닉한 뒤 미련 없이 다음으로 넘어간다.

이러한 '식품 소분' 문화가 확산되는 배경에는 복합적인 경제·사회적 요인이 얽혀 있다. 첫째, 선택지가 너무 많다. 이를 전부 맛보려고 한다면 비용이 만만치 않다. 샘플러는 합리적 탐험의 도구가 된다.

둘째, 실패비용에 대한 경제적 공포로 선택에 대한 실패가 두렵다. 2만원짜리 식빵 한 덩어리를 샀는데 입맛에 안 맞으면 버리기엔 아깝고, 억지로 먹기엔 괴롭다. 하지만 샘플러는 위험을 분산시킨다.

셋째, 1인 가구의 증가와 사회적 고립이다. 혼자 사는 1인 가구에게 대용량은 폭탄과도 같다. 먹다 남은 식빵이 곰팡이 피우는 광경을 누가 보고 싶겠는가. 소용량 소분포장은 신선함을 보장한다.

넷째, FOMO(고립공포감)심리 현상이다. '두쫀쿠' 광풍 현상처럼 남들은 다 먹어봤다는데 나만 모르면 소외감이 든다. 하지만 전부 사기엔 부담스럽다. 샘플러는 이 불안을 달래주는 진정제다.

흥미로운 건, 이 트렌드가 단순한 소비패턴을 넘어 우리의 미식 문화 자체를 재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엔 "이 식당 맛집이야"라고 하면 그 집 대표 메뉴 하나를 먹었다. 이제는 '이 동네 빵집 투어'를 하며 여섯 곳의 식빵을 조금씩 맛본다. 깊이보다 넓이, 몰입보다 샘플링이 미덕이 된다.

다*소는 VT 리들샷 미니 화장품으로 품절 대란을 일으켰고, L*생*건*은 세제 향 4종을 캡슐로 쪼개 향 테스트를 제안했다. 현대인은 선택하기 전에 경험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고있기 때문이다. 마*컬*의 식빵 샘플러는 상자 안에 "시식 순서 가이드"와 "취향 발견 퀴즈"까지 넣었다.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 "내 취향을 발견하는 여정"으로 포장한다. 소비가 자아 탐구가 되는 순간이다.

픽셀라이프는 짧은 시간에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다. 하지만 픽셀은 작고 빠르고, 흩어지면 이미지가 사라지듯 우리의 식문화가 파편화되어 기억에 남지 않는 휘발성 소비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픽셀라이프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우리는 큰 결정을 유보하고 작은 실험(샘플링)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이는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신품종을 알리는 '윈윈' 전략이 된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균형감이다. 수많은 픽셀(조각)들 속에서 나만의 온전한 그림을 완성해 나가기 바란다.

/연윤열 식품기술사,푸드테크 칼럼니스트

데이터 무제한의 함정

기자 수첩

김 서 현 〈IT부〉

2026년 봄, 정부가 내놓은 통신 정책의 수사(修辭)는 화려했다. '데이터 안심옵션(QoS) 전면 도입'과 '모든 국민의 기본 통신권 보장'. 기본 데이터를 다 써도 추가 요금 없이 인터넷을 쓸 수 있게 하겠다는 발표는 언뜻 파격적이다. 연간 3221억 원의 통신비 절감이라는 장밋빛 통계치도 덧붙여졌다. 하지만 발표장의 열기와 달리, 스마트폰 화면 너머 이용자들의 반응은 서늘하다.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그 '기본'의 해상도가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다.

이번 정책의 핵심인 속도 제한값 '400Kbps'를 들여다보면 실소가 나온다. 이는 20여 년 전, 3G 서비스가 갓 태동하던 시절의 속도다. 텍스트 위주의 메신저 대화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이미지와 영상이 흐르듯 소비되는 현대 웹 환경에서 400Kbps는 사실상 '불통'에 가깝다. 포털 사이트 첫 화면을 띄우는 데 수십 초를 기다려야 하고, 실시간 길 찾기 서비스는 멈춰 서기 일쑤다. 고속도로 위에 자전거를 올려두고 이동권을 보장했다고 말하는 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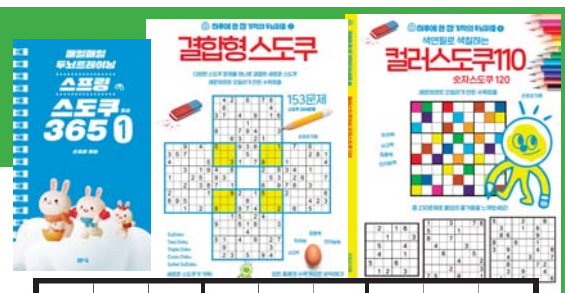
정부는 "데이터가 끊겨도 최소한의 검색과 네비게이션은 가능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하지만 AI와 고화질 콘텐츠가 공기처럼 존재하는 2026년에 이 기준은 너무나 빈약하다. 특히 이번 정책에서 정작 가격에 민감한 알뜰폰(MVNO) 이용자들이 초기 논의에서 배제된 점은 뼈아프다.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통신권을 누려야 할 이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에서 '보편적 권리'를 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결국 이번 QoS 전면 도입은 실질적인 이용자 편익보다는 '통계상의 성과'를 내기 위한 생색내기용 정책이라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통신사들은 이미 고가 요금제에서 QoS를 제공해왔고, 저가 요금제로의 이탈 가능성이 낮은 것을 알기에 정부의 요구를 흔쾌히 수용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심은 되지만 쓸모는 없는, 이른바 '계륵' 같은 옵션을 하나 더 얻었을 뿐이다.

진정한 의미의 기본 통신권은 단순히 '연결'되는 것을 넘어, 최소한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이 가능한 '품질'이 담보될 때 완성된다. 정부가 진심으로 통신비 부담을 덜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싶다면, 현대적 기준에 맞는 실효성 있는 속도 상향과 알뜰폰 이용자에 대한 평등한 혜택을 고민해야 한다. '무제한'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빈약한 속도가 국민의 권리를 오히려 좁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물어야 할 시점이다.

/seoh@metroseoul.co.kr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 해봄
스도쿠365



문제출제: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2			6			4		7
	8		5		2		9	
1								
	4			7			6	3
			1		8			
7	6			9			8	
								9
	2		9		6		3	
9		8			4			5

		1		4		7		
	4						3	
6			5		9			4
		9	4		7	2		
5								9
		6	9		5	8		
1			3		2			6
	6						1	
		2		7		5		

할인도서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14일 (음 2월 27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지나친 의타심이나 의존은 좋지 못합니다. **60년생** 과욕은 금물입니다. **72년생** 남에게 베풀면 자기에게 운이 되어 돌아옵니다. **84년생** 높은 곳만 바라보면 이루지 못합니다.

49년생 여행은 되도록 삼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61년생**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하루입니다. **73년생** 건강관리에 반드시 유의하세요. **85년생** 남을 비방하는 일은 하지 마세요.

50년생 불필요한 고집은 자제하세요. **62년생** 부부사이에 언쟁을 높이는 일이 있겠습니다. **74년생** 겉만 좋고 실속은 없으니 신중하게 대처하세요. **86년생** 유혹이 심하게 다가옵니다.

51년생 주위 사람들과 같이하는 일에 이득이 있겠습니다. **63년생** 여행수는 길합니다. **75년생** 적당한 운동을 하여 심신을 단련하세요. **87년생** 내가 가진 모든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52년생 실패를 보게 되는 운이 있습니다. **64년생** 현재에 만족한다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76년생** 바라던 바를 이루지 못하니 심기가 불편합니다. **88년생** 마음의 병이 나를 괴롭히는군요.

53년생 도모하는 일은 허망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65년생** 재물을 조심하고 그것을 탐내지 마세요. **77년생** 과음을 각별히 주의하세요. **89년생** 노력 끝에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54년생 대기만성의 운이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66년생** 금전의 유통이 잘 될 것입니다. **78년생** 좋은 기술을 배울 운이 있습니다. **90년생** 뭔가 배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열심히 하세요.

55년생 정도를 걸어야 됩니다. **67년생** 길운이 도래했으니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79년생** 혼자 떠나는 여행이 길합니다. **91년생** 겸허한 자세로 임한다면 흉이 적을 것입니다.

56년생 달이 구름 속에서 나오니 천지가 명명합니다. **68년생** 칭송을 듣게 될 것입니다. **80년생** 행복한 하루를 보냅니다. **92년생** 주위의 도움을 받아 도모하는 일을 성취시켜 봅니다.

57년생 꾸준히 정진하면서 때를 기다리세요. **69년생** 남과의 시비를 조심하세요. **81년생** 일의 압박에서 해방이 됩니다. **93년생** 주변 사람을 믿는다면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다.

58년생 자식들에게 반갑고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70년생** 저녁에 약속이 생깁니다. **82년생** 뜻하지 않은 재물이 생깁니다. **94년생** 합격운이 있으니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세요.

59년생 생소한 일은 되도록 삼가하세요. **71년생** 사기를 조심하세요. **83년생** 오랫동안 해왔던 고민이 주변사람에 의해 해소됩니다. **95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게 될 운이 있습니다.

김상회의 四季

성공의 원동력

비운의 왕으로 불리는 단종에 관한 영화가 엄청난 관객을 돌파하며 화제를 모았다. 수백 년 전의 역사 속 인물에게 사람들이 이토록 몰입하는 이유는! 그것은 아마도 거대한 시대의 흐름 앞에 놓인 한 개인의 운명이 남의 일 같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생을 살아간다. 그리고 그 삶의 궤적 위에서 문득문득 자신의 운명을 궁금해한다. 새로 시작한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 올해는 평생의 인연을 만날 수 있을지, 이번에는 승진할 수 있을지,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이런 궁금증은 명리 상담 현장에서 가장 흔하게 그리고 가장 절실하게 쏟아지는 것들이다. 겉으로 보면 이런 궁금증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고 싶은 마음처럼 보인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또 다른 이유가 숨어 있다. 그것은 바로 꿈이다.

사람들은 꿈이 있기에 자신의 운명을 궁금해한다. 성공하고 싶고, 자신의 노력이 결실을 이뤄서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 사주는 이러한 꿈이 피어날 계절을 준비해 씨를 뿌리고 수확하려는 지혜로운 농부의 마음과 같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의 불확실성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것이다. 운명에 대한 궁금증을 갖는 것은 개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향한 강력한 원동력이 된다. 꿈이 없는 사람은 운명도 미래도 궁금해하지 않는다. 그냥 하루하루라는 시간을 흘려보낼 뿐이다. 그렇기에 자신의 운명을 궁금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은 그 자체로 생명력 가득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궁금해하고 물어본다.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개운을 시작한 것이라고 말해 주고 싶다. 미래를 궁금해하는 그 마음이 좋은 운세를 끌어오는 힘으로 강력한 복의 시작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종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9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96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